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17호
2월 18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교단 2023년도 목사고시 치러

총회 고시위원회 주관, 합격자 대상 총회 인준 후 목사안수

2023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2월 6(월)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 주관으로 총회신학원에서 치러졌다.

2023년도 목사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는 2일간 치르던 것을 방역을 위해 하루 일정으로 치르게 되었다. 오전 9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신학원 3층 강의실에서 진행된 예배는 고시위원 이정진 목사의 인도로 고시위원 권우석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석호 목사는 복 22:24-27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는 '자라는 제도의 설교를 통해 "섬김의 가장 위대한 표본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 큰 유익을 끼치셨으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이번 목사의 직분으로 새워짐을 통해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면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으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원하느라 성과를 다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이어서 1교시 교회사, 교회성장학을 시작으로 교



회행정학, 구약학과 신약학, 조직신학, 목회윤리학, 기독교교육학, 헌법, 성경고시 등의 시험이 계속되었다.

2023년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과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총회에 올려져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자’ 주제로 열려

중·고등학생 겨울수련회 1월27일~28일 1박2일간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교회학교 중고등부의 겨울수련회가 지난 1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1박 2일간 전원성전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자'(행 2:46,47)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서 학생들은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과 여러 순서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학년에는 더욱 예배와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거룩한 비전과 청소년 사회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다.

수련회 첫째 날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헌신하는 교사와 교역자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을 축복해 주었다. 이어서 행 2:46~47 말씀을 히 10:25 말씀을 본문

으로 '신앙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습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다.

조용목 목사는 특강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앙생활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특기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이러한 훌륭한 습관을 들이고 행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주제에 따른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첫째 날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주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신앙심을 북돋워 주고 함께 예배와 전도에 힘쓰도록 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서 둘째 날에는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주제로, 조별로 모여 구역예배와 가정예배 형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다 니컬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에스더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차례 열린 성령충만 기도회에서 학생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회개와 신앙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갖고 전국소망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 청소년 사회에서 복음의 향기를 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아침예배와 심야기도회에서는 각자의 소원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중고등부의 부흥과 교회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합심하여 기도했다.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 “튀르키예 구호 복구에 적극 동참”

강도 만난 튀르키예 국민의 형제, 이웃이 되라는 명령으로 받아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대표회장 신명섭 원장, 이하 한복의협)는 지난 2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튀르키예 지진 구호와 복구를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복의협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강진이 너무 많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삶의 터전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로 변했고, 새벽시간에 갑자기 닥친 지진을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비참에 희생자가 컸다. 아직도 무너진 건물터미에 매몰된 사람의 수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지금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각 나라의 구호팀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속에는 튀르키예와 정치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의 나라들도 있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구호팀을 파견했다니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에 존경과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성도에게 합당한 웃음’



조용목 목사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시126:1~2)

웃음이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웃음은 마음에 여유를 주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웃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웃음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 합당한 웃음과 성도에게 합당한 웃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십구 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

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숙이고 웃으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배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

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마르래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대접한 음식을 먹은 후 말씀하시기를 “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리가 장막 안에서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였습니

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그들 몸의 상태에 집착하였고 상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고 합당치 아니하게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지적과 꾸지람을 듣고서 그들의 웃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된 결과가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리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높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

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습니

다. (창 21:1~3)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는 성도는 반드시 웃게 됩니다. 이런 웃음이 성도에게 합당한 웃음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누구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셨고 이러한 기쁨을 성도들에게도 주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

다. (요 15:11)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죄로 인하여 그리고 삶의 허무와 무의미로 인하여 우울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하여 줍니다. 슬픔과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성도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인, 성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천국, 부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의 천국과 삼급, 면류관 이 모두는 구원이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되고 경험하는 현실이 되었거나 될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경건에 속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웃으며 살고 즐겁게 살면 여러분이 웃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자신이 참으로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과 계시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맘마미야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기감·기장·통합 목회자들, ‘차별금지법 반대 연대’ 창립

모두 NCCK 회원 교단의 인사들... 탈퇴 논의도 주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등 3개 교단 목회자들이 동체 '기감·기장·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연대(가칭·아래사 진)'를 창립하기로 했다.

지난 1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해당 논의를 진행했다. 이 3개 교단은 모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 교단으로 기감에서 진행 중인 NCCK 탈퇴 논의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기감은 감리교 거룩성 회복 협의회 사무총장 민도원 목사와 실행위원 최상원 목사, 기장에서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창환 목사

와 서기 신현천 목사, 통합에서는 총북노회 동성애 및 젠더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기전 교수, 서기 박봉환 목사 등 6인이 모여 대표자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국교회가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모임을 통해 연대 대표에 소기전 교수, 서기 민도원 목사, 회계 김창환 목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을 누구보다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목표로 세 교단이 연대를 위한 모임을 계속 갖고, 순차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세미나 및 기도회, 반성경적 신학 대회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은 각 교단 회원들의 NCCK 탈퇴 요구도 하나의 배경이 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기감 제35회 행정총회에서는 NCCK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탈퇴 건금동의안이 상정됐다. 총회는 다음 임원의 회 때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감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지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NCCK에 발송했으며, 통합 총회도 유사한 질의를 했다. 기감의 경우 '동성애를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견지한 적이 귀 기관(NCCK)이나 예하 기관들에서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통합 총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및 동성애 문제에 대한 NCCK의 입장' 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chtoday



“한기총 정상화에 열정 바치겠다”

한기총, 제28대 대표회장장에 정서영 목사 선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지난 2월 14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8대 대표회장장에 정서영 목사를 선임했다. 한기총은 길었던 직무대행임시 대표회장 체제를 끝내고 정상화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정서영 목사는 소견발표에서 “지난 약 3년 간 한기총이 힘든 과정을 지냈다. 한기총의 문제는 비단 한기총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기독교의 문제”라며 “당선되면 한기총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다”고 했다. 특히 “한기총이 안정되면 한기총이 주축이 되어 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발언권을 얻은 엄인형목사(증경대표회장)는 “선관위에



서 후보자의 이력을 철저히 조사했고,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조치했을 것”이라며 “결림이 없다면 박수로 추대하자”고 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서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기립박수로 정서영 후보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총대들은 나머지 안건들을 모두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과 임원회에 위임하는 데 동의하고 폐회했다.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는 3월 3일(금)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신임 대표회장 정서영목사는 개혁신학연구원과 한민대학교 신학과(신학사), 개신대학교대학원(신학석사), 서울기독교대학교원(신학석사)에서 공부했다.

영풍회, 대표회장 이·취임식 예배

대표회장 계획원 목사,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계획원 목사)는 제40대 대표회장장에 계획원 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지난 1월 30일 충남 아산시 양무리교회(담임 계획원 목사)에서 드리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코로나를 극복하고 부흥으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광호 목사(총사업본부장·아름다운교회)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이선목사는 수 6:8-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가나안, 열여 주소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설립한 영풍회가 벌써 40년이 됐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라며,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두 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는 요단강이고 다른 하나는 여리고 성이다. 요단강은 법례를 맨 제사



장들의 발걸음을 따라 믿음으로 첫걸음을 옮길 때 열릴 것이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방편대로 믿음으로 돌 때 무너질 것이다. 영풍회는 계획원 목사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두려워하거나 원망·불평도 말고 전진하면서 한국교회의 가나안을 열자”고 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은 조종환 목사(임마누엘교회)가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 방희훈 목사(영주교회)가 한국교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박순자 목사(선석교회)가 “영풍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성경 보급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353,600부) · 성경(39,200부) 발송

지난해 2월 말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침공 받은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여전히 대규모 로켓 공격과 정전,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인 긴장감과 불안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주위 국가들로 피난을 간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사람들 모두 지속되는 전쟁에 큰 피로와 고통을 느끼고 있다.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양병희 목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성서공회로부터 긴급히 성경 후원을 요청받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했다.

많은 한국교회와 후원회원의 동참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353,600부와 우크라이나어 성경 39,200부를 발송했다. 현재 5차 발송 분 우크라이나어 성경 16,800부



는 제작중에 있다.

발송된 성경은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과 우크라이나 본토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부총무(우크라이나성서공회)는 지속적으로 현지 상황을 공유하며 성경을 후원해 준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에게 감사전을 전했다. 아래는 2023년 1월 26일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에서 전해온 감사편지 내용이다.

“오늘도 또 한 번의 대규모 로켓 공격이 날아들었고, 11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기반시설들도 피해를 입어서, 여러 지역에 전기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서공회는 계속 성경과 함께 음식과 물자를 보급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2월 말이 되면 이 전쟁이 시작하지 1년이 되어갑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전국교회 목회자부부초청 일일세미나

천일작정기도회운동본부 주최 … 설교의 능력과 은혜 사모

천일작정기도회운동본부(대표 강창훈 목사)는 지난 2월 9일(목)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동아교회’에서 전국교회 목회자부부초청 일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23번째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부부초청 일일 세미나는 이번이 제84차 및 제86차를 개최하게 되며, 전국 15,000개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

강사로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81차 세미나를 이끈 강창훈 목사를 주 강사로 강 목사의 사모 문경희 동아치유센터 원장도 함께했다. 특히 문경희 사모는 25년동안 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강사로, 예정장동 사모수양회에서 강사로 서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의 기도분량을 20



배 이상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으며, 설교의 능력과 은혜를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나누었다.

또한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뒷문을 막는 방법도 제시되며, 사모의 효율적인 사역

방법에 관해서도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목회자와 사모가 일평생 최고의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 등록비는 무료이고 주최측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겨울철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께 온정을”

‘곰날개클럽 리더스’, 연탄 나눔 활동 펼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곰날개클럽 리더스’가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곰날개클럽 리더스 소속 대학생 6명은 지난 1월 30일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연탄 1,000장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태백 꽃피발공부방 아동들을 만나 인근 눈썰매장에서 정서지원멘토 시간을 가졌다.

월드비전이 마련한 연탄 9,000장은 태백지역사회저소득가정 및 독거 어르신에 전달됐다.

곰날개클럽 리더스의 봉사활동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군에서 진행한 농촌봉사활동에 이은 두번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다혜 학생(국민대학교 4학년)은 “올겨울 한파가 절정이었는데, 이 연탄으로 태백 지역 어르신들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었다”라며, “특히 나눔을 받았던 아동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만큼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김순이 본부장은 “추운 겨울을 홀로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께 연탄의 가치는 가격 그 이상의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나눔을 계기로 곰날개클럽 리더스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대”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안디옥교회 지진으로 큰 피해

기감 소속으로 안디옥의 유일한 개신교회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항지진으로 인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튀르키예 안디옥개



신교회(담임 장성호 목사)가 3층인 교회 건물 중 1층만 남기고 무너지는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림교회 감동성 감독을 비롯한 단기선교팀이 수도 앙카라에 도착하자마자 지진이 발생해 감동성 감독을 비롯한 선교팀이 사고현장 가까이에서 장성호 목사를 만나 피해상황을 들었다.

기감은 이에 따라 긴급구호 3만불을 장성호 목사에게 보내 주변 구호를 위해 사용토록 조치했다. 안디옥개신교회는 안디옥 지역의 유일한 개신교회로 개신교 교회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

‘제14차 웨슬리언 신년포럼’ 개최

한국웨슬리언교회협 양기성 목사 대표회장 추대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는 지난 1월 27일 인천 부평 감리교회(감상현 목사)에서 ‘제14차 웨슬리언 신년포럼’을 개최하고 단체 연대의 출발점이자 신학의 줄기가 되고있는 존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 운동을 살폈다.

아울러 단체는 오는 5월 15일-17일에 개최되는 ‘제5차 세계웨슬리언국제대회’의 성공을 위한 준비회의를 갖는 한편, 이를 원활하게 이끌 새 대표회장장에 양기성 목사(정밀발기인, 청주신학교 학장)를 추대했다.

포럼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이상문 목사(공동회장, 예성 전총회장의 사모로, 먼저 직전 대표회장 주삼식 박사(성결대 전 총장)가 개회사를 전했다. 주 박사는 “신년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며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 달려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술교토 김진두 목사(감신대 전 총

장)가 기도하고, 부회장 이선목 목사(송의감리교회)가 성경봉독한 후, 전 대표회장 박동찬 목사(원산광림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박목사는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령님을 의지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열정을 회복해 우리 주변을 위해 나누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자”고 설교했다.

이어 배홍성 목사(기성 웨슬리언군선교사협회장)가 기도하고 양기성 목사가 선언문 낭독과 역사를 소개했다. 이어 전 대표회장 감철환 감독(오목전교회 원로), 공동회장 이형로 목사(만리현교회 원로), 학술공동회장 이후정 박사(감신대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축사 후에는 새 대표회장 추대식이 진행됐으며, 창립발기인 양기성 목사가 제14대 대표회장 겸 제5차 세계웨슬리언국제대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미주선교 50주년 하와이 성결인대회 개최

조일래 목사 설교… 코로나 후 영적 활력 심어

미주성결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하와이 성결인대회’가 지난 1월 27-29일 하와이 갈보리교회(제키 카오루 목사)에서 열려 하와이에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이날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조일래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자

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보리교회 찬양단의 뜨거운 찬양으로 신앙의 열기를 높인 후 조일래 목사(목자재단 이사장, 수정교회 원로)의 설교 후 기도회가 시작되어 성도들은 간절함기도로 뜨겁게 기도했다. 한국에서 온 목자재단 리모넬링팀도 피곤함에도 집회에 참석하여 성결인대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주일에 열린 마지막 날 대회에서는 백성도 목사(근치암성결교회)가 기도했으며, 채종석 목사(제산교회)가 축도했다.

세 차례 열린 집회에서 제키 카오루 목사는 “코로나 기간에 느꼈던 신앙을 조이고, 그동안 추구했던 방향과 목표를 재확인하는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말했다.

미주총회 총무 김시은 목사도 “이렇게 멀리 미주까지 와서 성전 리모넬링과 성결인대회를 인도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리모넬링 후원금 등 6,000달러를 전달했다.

황지혜 전도사(갈보리교회)는 “140년 전 미국에서 한국을 선교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선교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받은 만큼 하와이와 열방을 향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미주성결교회 창립 50주년 행사가 미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생명의 말씀 ■



김덕영 목사
• 서울중앙지방회장
• 전리교회 담임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의 의미나 가치는 얼마나 강한 힘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으며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소 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전상으로는 그다지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만 교회도 힘이 있다고 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짚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는 드러나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을 찾기 어려운 교회였지만 큰일을 해낸 교회였습니다.

본문 3:8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잘 보이지 않는 힘”, “드러나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진짜 강하고 큰 힘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힘은 드러난 힘이라기보다 잠재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잠재된 힘으로 두 가지 역사를 해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나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고,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 없어지고, 명예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게 됩니다.

사면 119:4를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인의 이 한 구절 고백 속에서 강력한 신앙과 실천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되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겠다는 것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 버리면 인생의 지침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 잃은 나그네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면 119:105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생길을 걷는 것은 헤드라이트를 꺼지 않고 어두운 밤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부딪쳐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며 힘 있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

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도전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종상과 모략과 박해였다고 하는 하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안에서 바람이 일고 있었고 밖에서도 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주님 곁을 떠나다가 결국에는 아주 주님을 떠나 버리고 맙니다.

추운 겨울날 불 곁을 떠날수록 점점 더 추워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내 삶 속에는 절망과 좌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과 밖에서 그 어떤 바람이 불고 유혹이 몰아쳐와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 습니다.

33년 동안에 생애 동안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셨던 사건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두 개의 가면을 쓴 채 주님 곁으로 다가오면서 “담배여 평안하십니까?”라고 거짓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팔아 넘겼 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도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등을 돌린다는 뜻을 갖습니다. 내가 빛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 있으면 내 얼굴에 빛이 쏟아져서 내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빛을 등

지면 내 얼굴은 어두운 그들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등지면 내 얼굴에 그들이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돌렸던 등과 얼굴을 주님께로 향한다면 그 순간 내 얼굴은 밝고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내 삶이 어둡다면 그것은 빛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힘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적은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능력”이란 말은 “무나미스”라는 헬라말을 번역한 말로 “폭발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폭탄은 제어무리 커도 폭발하지 않으면 하나의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폭발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이 일단 폭발하게 되면 땅이 패고 건물들이 날아가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힘을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120명을 성분별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 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힘이 생겼습니 다. 그 힘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이 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명하시는 선교에 전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9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히 받고 3천 명을 회개시키는 대성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히 받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는 성령 충만히 받고 위대한 순교자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곧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받았고 둘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다가 받았습니 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간구해야 한

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비겁하고 나약하던 사람들이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모르면 사람들이 가치를 찾고 올바른 삶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관해 지식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있는 인생과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내는 교회가 큰 교회이며 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강림을 기도하여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합한 세상을 함게 살고 함게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해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동 정

국회조찬기도회 2월 정기예배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회장 이재익 의원, 국민의원) 2023년 2월 정기예배가 지난 2월 8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의 국한 대립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김봉준 목사, 독버섯 같은 차별법 비판



서울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봉준 목사(아름다운교회)는 지난 9일(목)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두고 “독버섯과 같은 법”이라며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독을 감춘 독버섯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구속하고 벌주겠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영구 CBMC회장, 청년세대 세우야



제19대 한국 CBMC 중앙회장 김영구 장로(장위제일교회, 예장 합동)가 지난 2월 8일(수) 대치동 예장 합동 총회회장 인근에서 열린 교단 산하 청년세대 선교회의 바나바선교회 모임에서 MZ세대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를 세우는 캠퍼스 중심의 복음화 사역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지미션, 홀사모 후원 캠페인



사단법인 지미션(대표 박충관)은 평생의 동반자를 잃고 혼자 사역을 감당하게 된 사모를 위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 10일(금) 밝혔다. 박충관 대표는 “홀로 된 사모는 교회나 소속 교단의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낮은 임금과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로 남은 동역자와 사역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성 윤리를 거부하는 교육 현장 안 된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의견을 서울교육청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이에 반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AIDS, HIV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이다.

이에 대하여 일선의 교사들이 반발하였고 서울교사노조도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기회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당장 폐지하라’고 하였다. 어느 쪽이 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는 너무도 중요한 교육의 지표가 되는 것인데, 묵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사를 모 언론이 보도한 것을 보니 1,000여 이상의 댓글들이 달려서,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의회(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 당연하

며,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고, 반발하는 교사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견해들이 많다.

그 댓글들을 살펴보면 ‘혼전순결이 잘못된 것입니까? 논란이 아니요?’ ‘학교가 성행위가 권리이고 자유라는 퇴폐 사상 가르치는 곳인가? 절제와 책임을 가르치는 곳이지’ ‘맞는 말이 논란거리 되는 병든 사회’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기준은 정해놓는 것이 맞잖아, 자식한테 어떻게 가르칠 건데?’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도 건전한 성생활은 가르쳐야 한다’ ‘내가 부모가 되니까 전교조가 왜 쓰O기인지 알겠다’ ‘학교에 애들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필 배우겠냐’ 심지어 ‘교사들의 성윤리가 얼마나 쓰O기인지 알겠다’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많다.

물론 지금이 조선시대와는 볼멘소리도 있으나, 법률보다도 더 중요한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사람의 근본도 도리와 가치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서울시의회(의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모든 것에는 기준과 목표가 있고, 높은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性)과 생명이 방종과 무질서로 난잡하고 뒤죽박죽될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며, 사회공동체가 된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한국 여성 총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 사이비이단 등을 ‘가짜 약자’로 포장하여 과잉보호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이라면서

한국성경교회연합회(대표회장 신현파 목사, 한성연)는 지난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폐기를 위한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기성 총회장 김주현 목사와 여성 총회장 신현파 목사, 나성 총회감도 윤분기 목사 및 각각의 교단 총무들이 함께했다.

시위에 나선 김주현 기성 총회장은 “건전한 종교적 비판은 다른 어떤 자유보다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현재 대법원 판결”이라며 “사이비이단의 표입에 넘어가 가정이 깨어지거나 재산을 탕진한 사례, 특정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상 ‘혐오표현’으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성소수자, 사이비이단과 같은 종교소수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약자’

로 포장하여 건전한 비판을 차별로 정죄하고 항법, 과징금으로 틀어막으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악법”이



월례회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2월 6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순복음살롬교회(담임 김태주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는 한편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사회로 강광수 목사(순복음아미교회)의 대표기도, 홍진일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요 17:1-5 말씀을 본분으로 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의 설교, 진영훈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헌금기도, 증명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음한세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 후 2부 회무처리를 마치고 이전한 순복음살롬교회에서 첫 월례회를 드린 기념으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나누고 교회에서 제공한 쇠고기 전골로 맞

식사를 하고 찾집으로 장소를 옮겨 지방회의 발전과 개 교회의 올 한해 부흥과 성장 등을 기쁨으로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가진 후 3월에 있을 정기지방회 때 만남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순복음주찬미교회 새성전입당, 장로·안수집사 임직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박영욱 목사)는 지난 2월 12일(주일) 오후 3시 30분 순복음주찬미교회 본당에서 본교회 새성전입당 및 장로·안수집사 임직 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조은혜 목사(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의 대표기도, 조정화 목사의 성경봉독, 전임 교단 서기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수 8:30-35 말씀을 본분으로 한 '그리심산과 애발산'이라는 제목의 설교, 지방회 회계 황영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헌금기도, 주찬미찬양대의 특송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임직식에서는 지방회장 박영욱 목사(순복음합동교회)의 장로서약, 안수위원의 안수례와 작의, 악수례 후 박영욱 목사와 윤혜영 담임목사가 각각 장로·안수집사를 공



포하고 임직패를 수여했다.

3부 순서에는 Good TV 부울경 본부장 김형수 목사와 부산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축사,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권면, 박현화

장로의 답사, 조인테리어 박지식 대표의 감사패 증정 후 임직자들에게 선물과 쫓다발을 수여하고, 윤혜영 담임목사의 인사 및 광고 후 지방회장 박영욱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월례회 및 송년회 갖고 선교바자회 개최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형순 목사)는 지난해 12월 19일(월) 포천 산정리순복음교회(담임 임웅재 목사)에서 경기지방회 전회원과 사모들이 함께 모여 월례회 겸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

회)의 대표기도, 이옥희 목사(선교교회)의 성경봉독, 정광호 목사(동문교회)의 장 45:1-8 말씀을 본분으로 '교수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 김경순 목사(하목한교회)의 헌금기도 순으로 드려졌다.

예배 후 월례회를 전 회원이 은혜 가운데 마친 후 2부 순서로 계획된 선교바자회와 송년회 시간을 가졌다.

선교바자회 물품은 각 개 교회마다 자발적

으로 섬겨준 물품을 필요하신 분들이 아낌없는 구제로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채워졌다.

다음순서로 송년회 시간의 하이라이트였던 조광현 목사(드림교회)가 진행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전 회원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 3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준비해 참석한 회원 모두가 빠짐없이 받아갈 수 있었던 넉넉한 송년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을 전하는 목회 다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형열 목사)는 지난 2월 14일(화) 시냇가에 심은나무교회(표한자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예배는 강신홍 목사(주사랑교회)의 찬양인도에 이어 김진현 목사(비전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효신 목사(천양교회)의 대표기도, 김미연 목사(월린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 총무 서경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 목사는 롬 2:5-8 말씀을 본분으로 '적치하다(storing up)'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양 떼를 이끌고 있는 주의 종이다. 그런데 주의 종이 양떼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복음의 사명을 잃고 세상적인 방



범으로 양들을 이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며 "나만을 위하고,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먼저 더 깨어 기도하며 맡겨진 양떼를 생명의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합심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를 위해,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후 서성영 목사(복된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박형열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이 지방회장의 인도로 2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기념촬영 후에 지방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후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님)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살피 새로운 방향 모색해야”

미래목회포럼 제19-1차 정기포럼 개최

미래목회포럼(이사장 이상대 목사, 대표 이동규 목사) 제19-1차 정기포럼이 지난 2월 2일(목)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위드 코로나19, 한국교회의 내부 선교적 과제:제도약과 추락의 기로’를 주제로 열려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장신대 디아코니아연구소장)와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연구소)와, 민희규 교수(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발제했다.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대표 이동규 목사는 “코로나 3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변화의 방향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하고 “시대의 변화는 코로나 사태의 이전에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급속한 변화를 촉진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심상호 목사(대전성지교회)를 좌장으로 발제가 진행되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한호 목사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방향’을 주제의 발제에서 춘천동부교회의 ‘찾아가는 교회’를 소개하고, 당회와 장애인, 농촌, 민관협력 차원에서 교회 사역의 실제적인 적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목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생존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삭막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이 시대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 양친 잃은 자를 하며 한국교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내부 선교적 과



제가 있다면 실천적인 섬김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엔데믹 리스크’를 주제로 발제한 조성돈 교수(목회사회학연구소)는 “모든 부분이 위기일지 모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초대 교회 당시 에루살렘을 넘어서 서구로 나아간 바울의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의 교회도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에 맞는 교회론을 갖추어야 한다. 율법이 규정하는 교회와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 가운데 창조해 나가는 교회와 신앙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또 “은리인은 처음에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왔으나 콘텐츠가 쌓이고, 기술도 늘어나고, 우리의 경험지도 올라가면서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복음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맞는 형태로 나아가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희규 교수는 ‘한국교회, 회복인가? 추락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는 인간으로서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혹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가늠이 안 된다’라고 단순히 규정해 버리고 나면 그것 역시 큰 실수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더욱 절망적이다. 교회의 지도자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윤영민 목사(대천교회), 양인순 목사(안중은누리교회), 박명룡 목사(청주서문교회)가 패널로 나서 논평했으며 이상대 목사(서광교회)의 총평,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교수)의 마침기도, 박병득 목사(시흥중앙)의 광고로 미래목회포럼 제19-1차 정기포럼이 마무리되었다.

팔레스타인에서 ‘200번째 국가선교 기념대회’

(사)AWMJ선교회, 세미나와 기도…3월 10-12일

세계 247개국 모든 나라에 기독교 복음전파의 세계 선교사역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003년 12월 3일 시작된 AWMJ선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로 3월 10-17일 팔레스타인에서 ‘AWMJ 200번째 국가선교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AWMJ선교회는 지난 2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안디옥성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번째 국가선교사역 기념대회’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다.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와 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0개 국가에서 선교사역을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한국과 세계선교지도자와 선교학자들,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AWMJ 사역의 열매를 평가하고 그 결과물을 세계에 드러내어 선교 동력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다.

대회와 탐방 두 가지 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2일까지는 베들레헴 바이블칼리지와 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에서 ‘200번째 국가사역 기념대회’로, 17일까지는 성경의 땅 탐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0일에는 개회예배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해 전문강사의 강의가, 11일에는 팔레스타인 종교, 기독교, 선교, 경제, 사회, 교육에 대해 강의가 진행되며, 교제 지도자 초청 세미나, 목회자 초청 세미나도 마련된다.

12일 오전에는 200번째 사역국가 기념예배가, 오후에는 한반도 평화통일 팔레스타인 기도회를 세계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진행한다. 저녁에는 한인선교사 초청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대회의 주요강사로는 신화석 목사(Global Ambassador, WEA), 복미 Tereso Casino 박사, 동구라



파 이슬람선교 전문가 Hervein Fusherkati 목사,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 Jack Sara 총장 등이 함께한다.

이사장 신화석 목사는 “코로나로 위축된 전 세계에 가서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고자 했으며 힘을 아끼는 선교계에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일깨우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선교라고 판단해 200번째 국가선교 사역을 국제 이벤트로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13일에 194번째 나라로 출발해서 34일 동안 200번째 나라까지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200번째 국가선교사역 이후에 247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AWMJ선교회가 주최하며, 세계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안디옥교회, 행복한안디옥교회,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가 공동으로 협력한다.

참가신청과 대회 관련 문의는 준비위원회(위원장 홍석영 목사) eMail 200th.country@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중국 시진핑 세 번째 연임과 동북아 질서 안정화 논평

시진핑 3연임은 중국의 일인체제로의 복귀로 우려된다

중국은 시진핑이 2022년 10월 23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중국 공산당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시진핑 이전까지의 공산당 내의 여러 세력들의 연합체 성격의 집권세력이 시진핑 1인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1인 체제의 형성이 세계의 국제질서와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도전이자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2013년 3월 14일 임기 10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선출되었고, 2017년 10월에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당장(당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그는 당 사요령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당의 지도이념에 반영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에 이어 두 번째로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 사상을 당장(당헌)에 넣은 인물이 되었다. 소위 ‘시진핑 사상’이 국가 지도이념으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권력 기반의 공고화와 함께 장기 집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살펴내보는 그의 세 번째 연임의 의미와 동북아 질서 안정화의 과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한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은 당 사요령 이래의 집단정치체제를 청산하고 일인 장기집권화체제로의 복귀로 우려된다

시진핑은 중국공당을 외치며 중국을 마오 시대로 되돌렸다.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개혁·개방은 퇴조했다. 도광양희(韬光养晦)가 저물고 전랑(戰狼) 외교가 본격화했다. 베이징에선 왕이 외교부장, 서울에선 심하이밍 대사의 연행이 나날이 거칠어졌다. ‘시진핑 사상’은 당사요령의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급격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 누적되어 온 빈부·노동 격차, 심각한 부패와 민심 이반 등의 현안에 대한 고민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일당 통치 강화와 빈부격차를 축소할 균형적 성장과 발전, 경제 분야에서의 국가적 역할 강화, 그리고 사상 통제 등을 통해 철학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요강 사회(小康) 확립,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 종업치당(嚴治黨) 등 4가지 전면 전략과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소위 5위 1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등소핑 이래 정쟁(政爭), 후진타오 주석 등에 의해 30년간 운영된 실용주의적 노선이 퇴각되고 마오쩌둥의 이념주의로 되돌아간 것이다. 동북아 안정질서의 변화로 우려된다.

2. 시진핑의 장기집권화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백지판에 사유에 백기를 들어 급격한 방역 자유화와 국제여행 자유화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의 내부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그간 집단지도체제를 근간으로 중국 공산당 영도자들이 매년 여름 베이징에서 휴가를 함께 보내면서 이권을 조율하는 한편 국가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부위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13억에 달하는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통치해 왔다. 그러나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중국 정치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1인 독재 체제로서 앞으로 거국(巨國)을 이끌어가는 데는 많은 부담과 무리수가 예상된다. 기갑(機甲)은 최근의 코로나 환자 과잉 통제로 불거진 주민들의 백지 항의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지금 정보화 사회, 다원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이 안고 있는 노사분열나 빈부격차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인들은 집단적 소요와 반발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에 대한 백지 항의의 사유에 굴복한 시진핑 정권은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 전략의 난폭성은 중국의 경제적 G2 위상에 걸맞지 않고 중국이 외교적으로 고립화된다는 사실을 주지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에 의한 강국을 추구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맞서 지역주의로 맞불을 놓으면서 소위 ‘전랑외교’(戰狼外交)를 펼치고 있다. 늑대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역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창안한 주미대사 친강(秦剛)이 최근 중국 외교부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앞으로의 중국식 광복 행보가 어떠한

지 주목된다. 전랑 외교의 명칭은 중국 인기 영화 ‘전랑(戰狼, 늑대 전사)’에 빚은 것으로 ‘중국을 범하는 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멸한다’는 포스터 표현처럼 무법성과 난폭성을 짐작케 한다. 시진핑 집권 시 내건 소위 ‘중국몽(중국의 꿈)’이 ‘전랑 외교 전략’으로 드러남으로써 과거 보수적 수동적 외교 자세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주도적인 고자세 외교 전술을 펼칠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이러한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항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4.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맞선 중국의 전랑 외교에 대해 쿼드체제와 파이브아이스에 들어가 중국을 중국몽의 중화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대중국 압박을 가하고 있는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체제를 비롯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미, 영, 호주 등 19개국 참가)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이 동북아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국이 대외 출구전략으로 추진해온 ‘해양 굴기’와 ‘일대일로’ 정책의 확장 여부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일국양제’의 강력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바로 거기가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충돌지점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의 중화주의는 아시아 곳곳에서 마찰을 내고 있다. 대통령 환대에 수행 기자가 폭행을 당해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저자제 외교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쿼드(Quad)체제와 협력해야 하고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자유국가 일본과 협력함으로써 시진핑으로 하여금 중국몽에서 나와서 아시아에서 만행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5. 북한을 속국으로 취급하려고 하고, 북핵을 허용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 전술 핵을 도입하여 대등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북한은 그동안 ‘냉전 동맹’ 관계를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다. 반면 중국은 일관되게 한-미 군사 동맹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해 왔고, 북한도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한다고 외쳐 왔다. 북한이 그간 한-미 동맹에 대해 외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국가이익이 일치된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략적 속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진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 북한은 티베트와 신장의 길로 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 장치를 한반도에 증강 재배치하여 중국의 북한을 통한 한반도 영향력에 대응해야 한다.

6. 한-미-일 관계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공략에 대해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간 중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이뤄진 한-미-일 연대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여 노려해 왔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미국을 태평양 동쪽으로 밀어내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미 동맹을 눈엣가시처럼 간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드(THAAD, 미국 육군 탄도단 요격유도탄 체계) 문제에 대해 정치 경제 외교적 압박과 다양한 압력 및 보복성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중-러 전투기의 한반도 영공 침입이나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유엔에서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중국인 코로나 입국 심사를 강화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 조치한 바 있듯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도발적 행동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은 자신들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지만 실제로는 자주 보복요법으로 나오는 이중성을 주목해야 한다.

7.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속적 외교 아닌 한미 동맹을 배경으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외교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

폼페이오는 2023년 최근 출간된 회고록에서 2018년 3월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

문해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은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국의 철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진핑이 한국을 자기의 속국으로 생각한다는 중화주의적 사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중 간 대결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선택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정권처럼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애증간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가안보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연대체제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대중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결과적으로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협력적 존재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두려워하는 취약점도 많다. 중국 영토는 주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저항이 일어날지 노심조사하고 있다. 티베트의 경우 반란 성향이 강하며 홍콩 문제에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노골이나 다름없다. 홍콩, 위구르 또한 방심할 수 없다. 하나의 분열은 또 다른 분열로 이어진다는 우리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를 그토록 강조해 온 이유이다. 중국의 내적 속성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강한 나라에는 부드럽게’,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 점을 심본 유념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중국 측이 손을 내밀며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북한은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식량·석유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 ‘북한은 동북 4성’이란 말까지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우리러본 것은 시대착각적인 시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자유연대를 위하여 국제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처럼 윤 정부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서방 자유국가들과 함께 이 지역의 자유와 독립이 신장(伸張)되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6일
살롱을 꾸민 나비행동

‘리빙도너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

EJN, 생존 시 신장기증인 위한 후원금 전달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이하 본부)는 지난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크리에이터 플랫폼 기업 EJN(대표 박찬제)의 위드히어로(With Hero, 리빙도너/이하 리빙도너)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라이브 스트리밍 후원 플랫폼인 '트윅'과 크리에이터 팬덤 커뮤니티 '트케터' 등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EJN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이번 후원은 공개적으로 동료 구성원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내 프로그램 'Kudos(영광)'의 직원 참여율을 후원금으로 환산하여 이루어졌다.

EJN이 후원에 참여한 리빙도너 캠페인은 지난해 뇌사 시 장기기증인과 그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일면식도 없는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해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한 생존 시 신장기증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EJN은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생존 시 신장기증인을 위한 리빙도너 캠페인에 참여하며 생명나눔 영웅들을 향한 응원에 힘을 보탰다.

EJN이 장기기증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데는 박찬제 대표의 영향이 컸다. 박 대표가 혈액투석 치료를 이어오다 최근 신장이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박 대표는 "하루의 1/4을 치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한다."라며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생존 시 신장기증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Kudos를 통해 건강한 사내문화를 형성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영향력이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게 돼 만성 신부전 환자들께서 삶을 선물 받는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기아대책, 튀르키예 피해 복구 지원 위한 긴급구호팀 급파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진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및 시리아의 현지 아동과 주민을 돕고 지역사회 재건을 위해 긴급구호팀을 급파했다고 지난 2월 8일 밝혔다.

1차 긴급구호팀은 튀르키예 현장에서 피해 규모 조사 및 즉각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겨울철 지진 피해에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0억 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생필

품 키트, 쉼터 등 구호물품을 현지에서 조달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은 네이버 해피빈과 카카오 같이 가치 및 자사 홈페이지에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대책은 추가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해 피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재건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지원이 시급한 영역을 파악해 긴급구호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라

선진들의 노고를 살펴보라.
그 피 흘린 대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소중함,
신앙의 자유함,
어찌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으랴.

복음은 생명을 사수한다.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게 하시고
신학도들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온 세계를 향해 전하게 하소서.

신년초에도, 추운 겨울에도,
경상도 의성을 향해서,
전라도 입실 방천을 향해서,
물 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동네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마을회장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영접기도 하는 기쁨은
이후 헤아릴 수 없다.

마천동 축복교회 김보배 목사,
마음이 넓고 베풀기 좋아하는 목회자.
김보배牧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시켜
정금같이 빛아지게 하시다.

올해 한 달에 한번씩
가족세트 전도집회를 하기로 했다.
가족세트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는
북새통인 시장터에서 목이 터져라 외친다.

오고가는 행인들을 향해
머리에 손 얹고 인수하며 영접기도를 시킨다.

양쪽손이 정신없이
머리를 향해서 돌아간다.
성령의 능력으로 책! 책! 책!
진행되어지는 모습은
계획된 것 같은
한 쪽의 장관을 이루었다.

어떤 분은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까지 오셨다.

마스크전도왕 김동일 목사,
새벽전도왕 박라미 권사,
말씀전도왕 이효상 교수의 스태프들은
박영수 목사를 중심으로
전도 훈련을 받고
한마음으로 전진한다.

오늘도 일년을 예약한 새생명교회를 향해
복음의 전도열차는 달리고 또 달려간다.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1691, 010)3730-2573



월드비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긴급구호로 1천만 달러(한화 약 127억) 지원 계획

국제구호 NGO 월드비전은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월드비전은 지난 2월 7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민을 위한 긴급구호대응을 위해 1천만 달러(한화 약 127억)의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지진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직원을 파견하고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영하의 추위를 보이고 있어 이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한용품과 난방기 제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사무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를 위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파트너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기 긴급구호는 튀르키예의 가지안테프와 신리우르프 지역, 그리고 시리아 북부의 아지즈, 아프린, 이дли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이들 위



해 월드비전은 한화 약 127억(1천만 달러)을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월드비전 역시 이번 대지진 긴급구호대응을 위해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한국월드비전 공식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와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한국월드비전 조영환 회장은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망자수가 시시각각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감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된 아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신대학교 대학원, 2023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아신대학교 대학원(이하 'ACTS')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금번 2023학년도 전기모집에서는 △일반대학원(철학박사, 신학석사, 문학석사) △신학대학원(신학, 목회학, 성경강해학) △선교대학원(일반, 아랍, 북한, 미디어, 비즈니스선교학) △교육대학원(상담, 교육과정) △상담대학원(기독교상담, 가족상담)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사회복지,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복지융합) 등 6개 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입학정원을 25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다양한 전공에서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심층 깊은 신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은 트랙제를 도입(목회, 선교, 교육, 상담트랙)하여 목회현장별로 전문화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신도를 대상으로 성경을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신학전공(문학석사)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교육대학원은 방학중 계절제 수업, 선교

대학원은 온라인위주 석사학위과정 운영, 상담대학원은 하이브리드 수업 진행,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은 2개의 자격증을 동시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전공과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ACTS 대학원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신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31-770-7794~6
대학원홈페이지: www.acts.ac.kr/grad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는 곳으로

이역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어리석은 자가 따로 없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방의 한 고급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잔느 칼망이란 할머니가 있었다. 하루는 이 할머니 집에 어느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매월 4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을 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사실 집만 반듯했지 소득은 거의 없고 연금을 받아 사는 할머니는 그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다.

할머니도 만족했고, 변호사도 목돈 들이지 않고(예산상으로 아주 좋은 거래라고 생각) 좋은 집을 구입할 수 있어서 대만족이었다. 변호사가 찾아갈 당시 잔느 할머니의 나이는 90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할머니는 돌아가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정정하게 살아있었다.

변호사가 할머니를 찾아왔을 때 그의 나이가 45세였는데 77세에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할머니는 계속 살아계셨다. 결국 변호사가 죽은 뒤 2년이 지나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변호사의 가족들이 대신 그 집을 물려받았다.

적은 돈으로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는 욕심은 결국 손해로 돌아왔다. 그동안 할머니에게 변호사가 지급한 돈은 그 집 시가의 2배가 넘었다.

계약 맺을 당시 90살 노인이었는데 32년을 더 살아서 122세로 기네스북에 세계 장수(長壽)노인으로 등재될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누구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다. 욕심이 앞서면 손해 보는 법이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어리석은 자가 따로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 12:20)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삼세번... 삼세번...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던 하나님
자녀 된 백성들 회개하길 바라시며(렘 7:25)
삼세번... 삼세번... 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전도자들을
꾸준히 보내시는 하나님
돌아올 자녀 생각에 참고 또 참으시며
삼세번... 삼세번...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셨을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찾아
넣어주고 또 넣어주시며
삼세번... 삼세번... 하시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설렐셨을까?

상황에 반응하며 사는 나를 불러
본질을 찾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세번... 삼세번 하시며
믿음으로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

구원 받고 영안 열려 천국을 보게 하셨으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리고 또 알리어
삼세번... 삼세번... 몸소 보이신 사랑 따라
영혼사랑 마음 품고 그 길을 걸으리라.



선지자들을 꾸준히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구원도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는다.
(렘 29:15~23, 히 9:27, 행 11:10, 요 21:15~17,
사무엘 3번 부름, 요나의 삶)

사설

속히 복구되어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3만 8천여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날 것으로 보여, 세계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건 발생 72시간이 ‘골든타임’인데, 이곳에는 강추위가 닥쳤고, 내전 상태에 있는 시리아의 국내 사정 등으로 체계적으로 인명구조가 어렵고 또 이어지는 여진으로 구조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고, 우리나라도 118명의 인명구조단을 파견하고 인도적 차원의 구호금을 보내는 등의 신속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터키는 우리

나라 6.25전쟁으로 공산침략군으로부터 극한 괴로움을 당할 때, 군대를 파견하여 함께 싸워준 고마운 나라이다. 터키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형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였으니 이

제는 우리가 힘써 도울 차례라고 본다.
우리 한국교회들도 성경 말씀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으로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되기를, 재난당한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재난당한 지역이 속히 복구되어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정의 손길을 펼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사과도 참회도 회개도 없다

조국 분제가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치기를 할 때 ‘우리 조국’이라면서 외치던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고 한다.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맨 처음 복음을 외칠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다. 이후 제자들의 외친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다.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뜻이다.

천국 입성의 처음 조건은 ‘회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과도 참회도 회개도 사라지고 없다. 우기고 잡아떼고 뒤집어씌우고 거짓말을 해대면 먹혀드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김성태 전 회장이나 이재명 당 대표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는 말은 일면식도 없다는 것이다. “웃기도 스친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로 드러난 내용은 무엇이었나? 전화도 반번했고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의 말로는 서로 친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기도 대북 사업을 위하여 쌍방울그룹에서 500만달러를 북에 제공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남북을 위한 보조금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말고도 쌍방울의 임직원들의 입을 통하여(60여 명) 드러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김성태는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 대표는 검찰의 신작소설이라며 술을 웃어가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번에는 자신의 방탄을 위하여 ‘김수완백범 법률안’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럴 때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왜 뻔한 거짓말을하나? 거짓이 이익일 때 사람은 거짓말을한

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다. 가장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는 집단이 정치권이다. 과거 정부의 범죄가 드러나면 정치 탄압이라고 외치면 된다. 그리고 정외집회를 해서 여론전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지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전술을 사용한다. 나치가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다.

죽창기를 맨 먼저 외치며 국민들을 선동한 조국 전 법무장관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우리가 조국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침묵모드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간신히 조국의 강을 건너자마자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는 늑에 빠지고 말았다. 더 이상 공당이 아니라는 느낌이다.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과 민주당 골수파인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나온 데이터는 만일 기소 되면 사퇴해야 한다고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에서는 65%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무려 64%였다. 사퇴해야 한다고 민주당 입장은 그러거나 말거나다. 이재명 당 대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최근에는 29%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국민의 지지율은 36%였다.

정치권을 보면서 큰비위 얼굴의 출현을 고대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큰비위 얼굴은 출현하지 못했다. 대신 한 번도 경한해보지 못한 아바위 얼굴만 등장하고 말았다.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할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로다”(시 82:27)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1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1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 오후 1시(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2월 24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병 목
총 무 목사 정 진 군